—가정복지를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할—

子女의 役割

朴 性 洙 (敎博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교수)

I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立場과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면이 있다. 신체적인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신체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행복하고 밝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가난과 전쟁과 질병등은 인류의 행복을 깨트리고 가정의 복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個人의 幸福이 건강 돈 그리고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인간의 껍데기(皮膚)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인간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幸과 不幸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을 不幸하고 失意에 차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껍데기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생각이며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을 괴롭히고 실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事件이나 어떤 現象이 아니라 그 事件이나 現象에 대해서 사람이 지니고 있는 思考 내지 態度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미국의 뉴욕에서 心理治療活動을 전개하고 있는 Albert Ellis라는 심리학자는 사람이 情緖的으로 混亂되고 心理的 苦痛을 겪는 것은 그 사람이 現實의 世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非合理的 思考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非合理的 思考가 인간의 不幸을 초래한다는 입장은 現實的 條件에 불합리한 점이 많고 생활환경이 괴로움을 주는 逆境인 것 같은 오늘의 세계에서 어딘가 사치스러워 보이고 자학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身體的 疾病이나 傷害가 아니라고 하면, 人間의 苦痛은 자기 스스로가 창조하고 있다는 주장은 조심스럽게 검토해볼만한 것이다. 같은 사건이나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어떤 意見이나 態度를 지니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나 현상이 주는 결과가 전혀 다를 수가 있다. 같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이 우리에게 신체적인 傷處를 입히지 않는 경우에 그 일로 인해서 苦痛을 당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解釋하고 評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事像이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思考의 內容이라고 할 수 있다.

II

家庭의 福祉는 家族들이 생각하고 믿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家庭의 福祉를 깨트리는 것으로 지나친 가난이나 질병이 있지만 가난과 질병이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보다 家族의 行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非現實的 思考를 하는 家族이 있으면 家庭에는 非現實的 理想을 추구하게 되거나 現實과 동떨어진 행동이나 판단을 하게 되어 家族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非現實的 思考, 非合理的 信念, 非論理的 獨善, 融通性이 없는 態度등은 個人의 行動을 그릇되게 하고 家庭의 幸福을 깨트리는 가장 큰 原因이 되고 있다. 1950년대후반 이후에 발전된 認知情意治療理論(Rational-Emotive Therapy Theory)에 의하면 神經症, 精神病, 犯罪등의 不適應行動을 유발하는 것이 다름아닌 思考와 信念體制라고 한다. 家族의 福祉를 沮害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융통성있게 家族間의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즈음 사람의 행동과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원시인들의 것보다 좀더 나아진 것이 있거나 그리고 중세시대의 사람들 보다 조금 더 나아진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非現實的 思考와 幻想的 期待라고 할 수 있다. 科學의 時代에 人間의 행동이 現實的 判斷과 合理的 價値觀에 의해서 지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代人과 現代의 家庭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病理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家庭의 福祉를 이룩하는 길은 物質的이고 生理的인 條件의 개선에도 달려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家族構成員의 行動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思考, 價値, 感情은 실제적인 행위로 표현이 된다. 한 家庭이 얼마나 행복하냐 한 것은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行動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을 행복과 복지에 이르게 하는 것은 다름아닌 合理的이고 現實的이며 創造的인 行動이다. 극단적으로 죽음, 파산, 질병,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창조적 信念과 思考를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나타낼 수가 있다. 따라서 家庭의 福祉建設이나 社會의 福祉를 계획하고 추구할 때에 人間의 行動에 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수 있다.

Ⅲ

家庭의 福祉를 위해서 자녀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形象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인간의 행동이라고 詩人 Emerson이 말한적이 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것도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하는 아름다운 말은 가정의 분위기를 밝게 한다. 어려움에 처한 부모에게 지혜로운 위로의 말을 함으로 용기와 희망을 키워주기도 한다. 그리고 즐기롭고 인정에 가득찬 말은 피곤한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을 준다. 그러나 근거도 없이 불평하고 환상과 공상속에서 실현성도 없는 꿈을 지니고 현실을 망각하고 행동하는 자녀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깨트린다. 부모와 가족에게 憎惡와 敵慨心을 지니고 이를 病的으로 표현하면 가정은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곳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家族의 福祉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자녀들 자신의 行動을 현실성 있고 합리성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자녀들 자신이 現實的 思考와 判斷을 지니고 있을 때 家庭의 福祉는 증진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며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계속적으로 실패해서 가족에게 불안과 긴장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이와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불신하고 실패감과 무기력감에 빠져서 지내는 사람도 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를 직면하여서 해결하기보다 환상적 기대나 비현실적 희망을 지니고 이를 회피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家庭의 福祉와 個人의 福祉는 현실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에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양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크게 좌우된다고 하겠다.

둘째로 자녀들이 合理的 價値觀과 信念을 지니고 있는 것이 家庭의 福祉向上에 도움이 될 수 있다. 合理的 價値觀을 지니고 있을 때 그

사람의 行動은 기분이나 변덕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본능적 충동에 따라서 지배되거나 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현실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 非合理的 價値觀은 인간의 행동을 파괴적이고 自己敗北的인 方向으로 이끌어 갈 가능성이 크다. 現代의 心理學에서는 創造的이고 成就的 行動은 合理的信念이 있을 때에 보다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셋째로 家庭의 福祉는 創造的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자녀가 現實的 判斷과 合理的 信念을 지니고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여러가지 일에 관해 創造的 對話를 이끌어 가는 것이 家庭의 福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랑스의 精神科 醫師들은 사람들이 日常生活 속에서 하는 對話의 대부분은 對話라기보다는 서로 주고 받는 獨白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幸福한 家庭과 不幸한 家庭을 구별하는 하나의 基準이 對話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말이 없고 가족들끼리 서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에 그 家族들은 어떤 斷切과 不和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家庭에서 對話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創造的인 對話를 이룩할 수 있을 때 가정의 福祉는 증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Ⅳ

앞에서 家庭의 福祉에 관계되는 心理學的 側面을 認知的 領域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보았다. 認知心理學의 영역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널리 소개가 되지 못했고 또 認知心理學자체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認知的 接近은 인간의 여러가지 問題에 대한 論理的이고 實證的이며 동시에 合理的 解決方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家庭의 福祉를 위해서 現實的이고 創造的인 認知特徵을 지니는 것이 必要한 條件이라고 하더라고 充分한 條件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子女가 家庭의 福祉를 向上시키기 위해서 좀더 具體的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幸福한 家庭이란 아마도 挫絕과 失意·대신에 成就와 喜悅을 경험하는 가정을 가르키는 것일게다. 家族이 成就感과 喜悅을 경험하는 데에 子女들은 어떤 役割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자녀들 자신이 그들에게 부과된 일들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家庭의 福祉向上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은 發達의 段階마다 각기 독특한 課業이 있다. 이러한 課業만이 아니라 狀況에 따라서 要請되는 여러가지 일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때 이는 그 개인의 自我效能感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家族全體의 心理的 狀態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合理的 思考나 信念도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로, 자녀들 자신이 바람직한 人間關係를 形成하고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成長과 成就의 경험을 가지는 것이 家族의 福祉向上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상당한 부분이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또한 人間關係는 生活에 다양성과 생동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자녀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肯定的 影響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家族의 福祉를 위해서 자녀들이 원만하고 바람직한 交友關係, 異性關係, 윗사람과의 관계등을 지니는 것이 도움이 된다.

셋째는 家族들간의 福祉를 向上시키기 위해 家族들이 合理的 現實的 論理的이며 融通性있는 思考를 하고 그런 信念을 지닐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人間의 心理的 狀態가 家庭의 幸福과 직결되어 있고 思考, 信念, 態度가 家族의 福祉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變因이라고 한다면 家族들이 現實的인 思考와 合理的 信念을 지니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V

家族의 福祉는 健康이나 經濟的 條件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며 家庭의 生態構造的 特徵에 따라서도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本稿에서 認知의 變化에 의한 福祉의 向上이 戰略上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에서 子女들이 家族의 福祉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不幸한 사실은 사람의 병적인 행동이나 환상적사고 또는 비합리적 신념이 우리 문화속에 많이 있고 이 文化가 그러한 認知的 特徵을 조장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家庭의 福祉를 위해서만 아니라 社會와 國家의 福祉를 위해서 思考·信念·態度·價値觀과 같은 것을 合理的이고 現實的이며 論理的이고 融通性 있도록 하기 위해 家庭·學校·社會의 文化的 條件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課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 자신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의 오랜 桎梏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61페이지 에서>

이렇듯 재활간호원은 각 분야의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데 그렇게까지 갖추지 못 하고 있어 흡사 보모의 역할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현실정이라 한다. 그래서 재활의학이나 물리치료, 특수교육 등의 강사를 초빙하여 Inservice trainning을 했고 또 앞으로 할 계획도 세우고 있으나 수박 겉핥기식이 되기 쉬우며 간호원으로써 재활간호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속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간호과장은 얘기한다. 또 재활원 간호원 중 뜻이 있는 사람은 간호과 부담으로 물리치료과정이나 그외 특수교육 등의 연수를 시켜 줄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재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추후관리(follow-up care)이다. 그러나 현실성에서는 재활센타에서 수술받은 후 어느 정도 치료받고 퇴원하면 지역사회에서의 추후관리가 거의 백지상태이므로 퇴원 후 보조기부를 사용치 않아 더 악화되어 다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보건간호원이 이런 불구를 미리 예방하고 조기발견과 추후관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모자보건영역에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간호원이란 할 수 있겠다.

"이 분야에서 간호원이 활동하기 위해선, 첫째로 간호원들에게 재활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서야 할 것이며 간호원에게서 '사지는 멀쩡한 데 머리는 뇌성마비예요'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겠다"고 김 간호과장은 당부한다. 또한 "재활을 위해서는 항상 내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느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마음에 있지, 결코 경제적 여유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활회의 등에 간호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활분야에서 간호원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고 위치를 확립시켜 나가야 하겠어요."

많은 문젯점과 해결방안을 얘기하고 나서는 발걸음이 그리 무겁지만도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언덕 둘밭에서는 여러명의 아이들이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朴承子 記〉